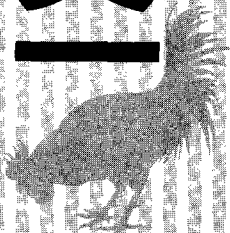


해외양계뉴스



일본

계란에 보존기한 표시제 실시

일본양계협회를 주축으로 구성된 식품위생조사회는 오는 7월 말부터 살모넬라 식중독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판매되는 계란에 보존기한 표시를 의무화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판매되는 모든 계란에는 생산자명과 GP센타명, 최대보존일(보존기한에 판매 후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더한 일수로 최대 생식(生食) 가능 기한), 구입후 8℃ 이하에 냉장보관, 보존 기한 이 지난 계란은 가열사용 등의 문구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되어있다.(鶏卵情報)

표1. 계란의 최대 보존일

보존온도(℃)	최대보존일(일)	보존온도(℃)	최대보존일(일)
10	57	24	22
12	51	26	19
14	45	28	16
16	40	30	13
18	35	32	11
20	30	34	9
22	26	36	8

* 최대보존일 : 보존기간 + 냉장고 보관기간(7일)

인도

타산업에 비해 닭고기 산업 유리

인도에서의 육류소비는 주로 양고기와 닭고기로 알려졌는데 표에서 보면 닭고기 산업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는 1980~2001년까지 축종별 인도의 고기 생산량을 나타낸 것인데 2000년대에는 가금육 소비가 전체 생산량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양고기와 쇠고기는 비율이 감소하고 돼지고기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WP)

표1 1980~2001년까지 가금육과 타육류의 생산비율

구 분	'80~'81년	'90~'91년	2000-2001년(예상치)
가 금 육	36%	44%	53%
쇠 고 기	15%	11%	7%
돼지고기	6%	8%	10%
양 고 기	43%	37%	30%

캐나다

cyanotic(푸른명 현상) 도계품 품질 양호

캐나다의 농업식품 연구기관과 온타리오지역의 켈프대학에서는 최근 연구를 통해 가금류의 도계과정에서 산소부족현상으로 피부가 퍼렇게 변하는 cyanotic현상에 대해 소비자들이 구입해 먹어도 안전하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외관상으로 푸른명이 든 가금류를 구입하는 것을 꺼려해 왔으며 불신을 해왔던게 사실이다. 이 연구는 cyanotic현상이 단순히 외관상으로 소비자들에게 구매력을 떨어뜨리고는 있으나 실제 일반 도계품과 품질면에서 전혀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인해 칠면조의 경우 1년에 55,000~110,000수 정도의 불량품 판정을 받아온 cyanotic 도계품을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금육에 대해서는 2차가공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상품개발을 하는 것이 권장되어지고 있다.(WP)

미국

금년도 양계 경기 전망

'98년도 미국의 양계산업은 아시아의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태국의 경쟁이 가세되면서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채란업은 미미한 증가, 육계업은 큰폭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미농무성은 올해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45,000톤이 줄어 2,137,500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견하였다. 수출감소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곳은 일본과 홍콩이지만 러시아, 발트해안국, 남아메리카 등

에서는 다소 수출이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칠면조 수출도 홍콩과 한국의 경제위기로 수입이 줄어 지난해 보다 6%가 감소한 274,500톤에 이를 것으로 예견되었다.

반면 계란소비는 지난해보다 2%가 증가하여 1인당 소비량 239개 보다 1개가 많은 240개가 될 것이며 계란소비 증가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견하였다.(WP)

태국

호주에 닭고기 수입개방 요청

호주에 대한 태국의 닭고기 수출은 제한품목으로 강력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최근 이에대한 실마리를 풀기위해 태국의 농림부 장관은 호주의 대사를 방문, 냉동 가공 닭고기에 한하여 수입을 개방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호주에서도 태국에게 탈지유에 대해 더 많은 수입을 요청함과 동시에 체리, 딸기, 사과 등 과일에 대한 관세를 낮춰줄 것 등을 요구해 앞으로의 협의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참고로 태국은 일본, 유럽, 싱가포르 등에 닭고기를 수출하고 있는데 금년도의 수출예상량을 보면 전체수출물량중 일본이 55%, 유럽이 30%, 싱가포르가 5%, 기타국이 10%로 발표되고 있는데 이는 '92년도 전체수출물량중 일본이 84%를 차지하던 것에 비하면 그 비중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며 수출의 다방면을 개척한 결과 유럽의 물량은 9%이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수출액은 지난해에 비해 39%가 증가한 75억바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APM)